

태권도 선수들이 인지하는 지도자-선수 상호작용이 자기효능감, 운동몰입, 인지된 경기력 간의 관계

WU JINGE(경희대학교 박사과정) · 최천*(중원대학교 교수)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한국 대학 태권도 선수들이 인지하는 지도자-선수 상호작용, 자기효능감, 운동몰입, 인지된 경기력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대학에서 태권도 겨루기와 품새 선수를 모집단으로 선정하여 비확률표본추출법 중 편의표본추출법을 실시하여, 총 289부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3.0과 AMOS 23.0을 통해 분석되었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호작용의 하위요인 중 믿음과 노하우는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상호작용의 하위요인 중 믿음은 운동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상호작용의 하위요인 중 노하우는 인지된 경기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술은 인지된 경기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자기효능감은 인지된 경기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운동몰입은 인지된 경기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현대 태권도의 발전에 따라 경기규칙, 시합전략은 계속 변화·발전될 것이며, 지도자들은 이러한 전문성 신장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대학 태권도 지도자들은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추기 위해서 워크숍, 세미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성이 있다.

주제어 : 태권도, 선수, 지도자, 인지된 경기력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이 스포츠 경기에 할 때 이기고 싶은 욕망은 중요한 근원적 동기이다. 타인에게 지는 것 보다는 승리하고 싶은 마음이 목표 달성을 위한 근원적인 힘이 될 수 있다(이원희, 2009). 특히 시합장에서 운동선수들의 최종 목표는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하여 메달을 획득하는데 있다(Jang & So, 2017). 그러나 이러한 개인적인 욕심에도 불구하고 운동선수들의 기술과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지도자의 역량이 부족하면 좋은 성과를 내기 힘든 사례들을 볼 수 있다(최미영, 2015). 지도자는 스포츠 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도자가 선수들에게 행동적, 인식적, 심리적 등 다면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많은 선행된 연구결과들을 볼 수 있다(남광우, 조옥상, 2014; 남광우, 김종식, 2016; 황정동, 주재형, 임승현, 2016). 이러한 연구결과로 인해 최근 지도자-선수 간에 상호작용은 스포츠 분야에서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인식되면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김지선, 2022; 조철호, 2022; Erickson & Côté, 2016).

상호작용은 두 사람이 서로 주고 받는 다양한 영향을 포함하는 것으로 매우 복합적, 역동적, 다면적이고 상호적인 요소이다(ckes & duck, 2000). 스포츠 분야에서 지도자와 선수의 상호작용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 간에 감정이나 생각을 공유하여 영향을 주거나 받는 것이다(Jowett & Cockerill, 2003; Jowett, Ntounamis, 2004; Jowett, Paull & Pensgard, 2005). 지도자-선수 상호작용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유영설, 이정훈, 문은지(2014)는 육상선수들에게 선수와 지도자의 상호작용은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언급하였다. 구경주, 정해상(2015)은 축구선수에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지도자-선수 상호작용은 운동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지도자와의 상호작용이 선수들의 경기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태권도 종목의 경우는 휴식시간에서 지도자가 직접적인 상대선수가 사용하는 기술에 대한

대처 방안이나 전략 등 피드백을 주기 때문에 지도자의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하다.

최동훈(2020)의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유능한, 능력 있는, 효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느냐와 같이 스스로 느끼고 있는 유능성, 효능성, 자신감을 의미한다. Bandura(1977)는 자기효능감이란 어떤 일에 직면하여 그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믿는 것을 자기확신이라고 했다. 상호작용과 자기효능감에 관한 선행연구를 보면 김혜정, 한송이(2013)가 교수-학생 간에 상호작용은 무용전공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수-학생 간의 관계를 친밀하다고 느낄 때 학생들이 신체에 대한 자신감과 안전감을 확보할 수 있어 무용 훈련에 전념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조남홍, 2008).

몰입이란 각 개인이 주어진 상황에서 최적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대개는 무엇인가에 빠져 즐거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Csikszentmihalyi, 1975). 즉,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에 빠져서 매우 기뻐한 심리 상태를 말한다. 스포츠 분야에서 몸과 마음이 운동상황에 집중되어 있는 최적의 상태를 운동몰입이라 한다(전경우, 2020).

경기력은 과거 체력과 종목별 기술의 두 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경력, 연령, 경기 기술, 정신력, 종목별 기술체력 및 기초체력이 경기력의 평가요인으로서 제시되고 있다(Stanula, Maszczyk, Roczniok, Pietraszewski, Ostrowski, Zajac, Strzała, 2012). 하지만 실제 스포츠 현장에서는 선수들의 경기력을 직접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워서 인지된 경기력의 개념이 도출되었다. 즉 인지된 경기력은 본인이 스스로 인지하고 현재 본인의 능력치나 수준을 파악하고 있는 것을 한다(윤정원, 2017). 선행연구에서 자기효능감, 운동몰입, 경기력의 관계를 살펴보면 골프선수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서 운동몰입의 인지몰입과 행위몰입 요인이 경기력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언급하였다(박금숙, 2021). 볼링선수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은 인지된 경기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언급하였다(이재권, 임세준, 2019).

채진수, 배원열, 한동유(2020)는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이 운동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자기효능감, 운동몰입 및 자기효능감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지도자와 선수들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는 상당한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배기열, 2008; Jowett, 2005; Ickes & duck, 2000), 현재까지 태권도선수를 대상으로 조사한 선행연구에서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지도자-선수 상호작용과 자기효능감 간에 인과관계, 지도자-선수 상호작용과 운동몰입에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욱이 태권도는 2000년부터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된 후에 전 세계적으로 발전하면서 이미 글로벌 스포츠로 되었으며, 특히 겨루기 종목 운동선수들의 경기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있다. 더 나아가 현재는 태권도 겨루기뿐만 아니라 품새 종목 선수들의 경기력이 세계적으로 평준화 되고 있으며(양대승, 2015), 2006년 첫 세계품새선수권대회가 창설될 때 전문가들은 품새만큼 절대 평준화될 수 없다고 하였지만, 2016년부터 한국 이외에 중국, 터키, 미국, 이란, 호주 등의 국가도 금메달을 획득하였다(MOOKAS, 2016). 이러한 현상에 따라 타국의 태권도 선수들에게 경기의 주도권을 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경기력 수준을 높이는 방안들이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태권도선수들의 경기력에 도움이 되는 선행연구는 대부분 선수의 기술향상, 태권도 훈련을 통하여 신체능력을 제고, 선수의 심리상태와 관련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김경수, 2022; 이경하, 최재원, 2023; Estevan, Falco, Elvira & Vera-Garcia, 2015). 이처럼 생리학이나 심리학보다 사회과학 관점에서 지도자와 선수들 간에 상호관계가 경기력에 대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태권도선수들이 인지하는 지도자와 선수 상호작용이 자기효능감, 운동몰입, 인지된 경기력의 관계에 대해 규명하여 태권도선수들을 지도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가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H1. 태권도 선수들이 인지하는 지도자-선수 상호작용은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태권도 선수들이 인지하는 지도자-선수 상호작용은 운동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태권도 선수들이 인지하는 지도자-선수 상호작용은 인지된 경기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태권도 선수들의 자기효능감은 인지된 경기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 태권도 선수들의 운동몰입은 인지된 경기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2021년도 대학 겨루기, 품새 선수를 모집단으로 선정하였다. 표본 추출을 위해 비확률표본추출법(NON-probability Sampling Method) 중 편의표본추출법(Convenience Sampling)을 실시하여 300명의 표본을 수집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이중응답과 불성실하게 응답된 설문지 11부를 제외한 289부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성

| 구분 | | 빈도 | 퍼센트 |
|------------|---------|-----|-------|
| 성별 | 남자 | 179 | 61.9 |
| | 여자 | 110 | 38.1 |
| 학년 | 1학년 | 114 | 39.4 |
| | 2학년 | 82 | 28.4 |
| | 3학년 | 58 | 20.1 |
| | 4학년 | 35 | 12.1 |
| 태권도 전공 종목 | 겨루기 선수 | 115 | 39.8 |
| | 폼새 선수 | 174 | 60.2 |
| 전국대회 입상 경험 | 있다 | 189 | 65.4 |
| | 없다 | 100 | 34.6 |
| 선수경력 | 3년 미만 | 63 | 21.8 |
| | 3~5년 미만 | 53 | 18.3 |
| | 5~7년 미만 | 58 | 20.1 |
| | 7년 이상 | 115 | 39.8 |
| 합계 | | 289 | 100.0 |

2. 측정도구

본 연구는 대학 태권도 선수를 모집단으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모든 문항들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구성하였으며 인구통계학적 5문항, 지도자-선수 상호작용은 19문항, 자기효능감 8문항, 운동몰입 8문항, 인지된 경기력 5문항 총 4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모든 문항은 다른 척도들과 동일하게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 척도로 사용하였다. 지도자-선수 상호작용은 Jowett & Ntmoumanis(2004)가 개발하고 김미선과 정지혜(2011)가 한국의 대학 선수의 운동 상황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한 상호작용 척도를 기초로 노충균(2016)이 사용한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지도자-선수 상호작용은 총 5개의 하위요인으로 대화 4문항, 기술 5문항, 믿음 3문항, 격려 3문항, 노하우 4문항, 총 1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자기효능감은 Judge(1997), Gully, & Eden(2001),

김봉경(2014)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였다. 자기효능감은 단일척도로 총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운동몰입은 Scanlan(1993)이 개발하고 정용각(1997)이 번안하여 사용한 운동몰입 척도를 기초로 박상우(2017), 전경우(2020)가 사용한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운동몰입은 총 2개의 하위요인으로 인지몰입 4문항, 행위몰입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인지된 경기력은 Mamassis & doganis(2004)가 개발하고 양대승(2015), 노충균(2016)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인지된 경기력은 단일척도로 총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지의 구성내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설문지 구성

| 변인 | 구성내용 | 문항 수 |
|-------------|-------------------------------------|------|
| 인구통계학적특성 | 성별, 학년, 태권도 전공 종목, 전국대회 입상 경험, 선수경력 | 5 |
| 지도자-선수 상호작용 | 대화 | 4 |
| | 기술 | 5 |
| | 믿음 | 3 |
| | 격려 | 3 |
| | 노하우 | 4 |
| 자기효능감 | | 8 |
| 운동몰입 | 인지몰입 | 4 |
| | 행위몰입 | 4 |
| 인지된 경기력 | | 5 |
| | 총합 | 45 |

3. 측정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본 연구에서 설문지 조사에 사용한 설문지의 구성내용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구성하였고 전문가를 통하여 설문지에 대한 자문을 받아 수정과 보완하였다. 설문지의 내용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태권도학과 교수 3명과 등록 연구자인 석·박사 원생 10명에게 설문지에 대한 이론적인 문제점에 대해 협조를 구성하였다.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사용하였고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1) 확인적요인분석

요인들 간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각 변인별 설정된 모형의 적합도 검증한 결과 절대 적합지수는 $\chi^2 = 1401.648(df=704, p < .000)$, $Q(\chi^2/df) = 1.991$, SRMR = .0494, RMSEA = .059로 나타났으며, 증분적합지수는 TLI = .917, CFI = .925, IFI = .925으로 나타났다. Netemeyer, Boles, McKee & McMurrian(1997)이 TLI, CFI, LFI의 모든 지수가 .90이상으로 나타나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김계수(2006)는 RMSEA 값이 .08보다 작으면 연구모형은 적합하다고 하였다. 집중타당성(convergent)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균분산추출지수(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값과 개념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CR)값을 계산한 후에 산출하였다. 모든 변인의 AVE는 .679~.860, CR는 .895~.962 으로 나타나 집중 타당성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변수 간의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산식을 적용하였다. 노경섭(2016)에 따라 구조방정식모델의 판별타당성을 검증할 때는 표준오차에 2를 곱한 값을 상관계수에 더하거나 빼 범위에 1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하여 계산식은 $(p \pm 2 \times S.E.) \neq 1$ 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 계산식에 따라 연구결과는 빼 범위는 .097~.799로 나타나고 더하기 범위는 .225~.996로 나타나 측정변수 간의 판별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2) 신뢰도 분석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값으로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지도자-선수 상호작용의 검증 결과 α 값이 .844~.907, 자기효능감은 .935, 운동몰입은 .850~.908, 인지된 경기력은 .919로 나타났다. 모든 Cronbach's α 값이 .8 이상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조사도구의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표 3. 확인적 요인분석

| 잠재변수 | 하위요인 | 측정문항 | β | S.E | C.R | AVE | CR | α |
|------|------|-------------------------------------|---------|------|-----------|------|------|----------|
| 대화 | 대화 | 1. 지도자는 대화의 시간을 자주 만들려고 노력한다. | .682 | .073 | 12.122*** | .684 | .895 | .844 |
| | | 2. 지도자는 급박한 순간 선수가 보낸싸인을 알아듣고 대응한다. | .722 | .070 | 13.014*** | | | |
| | | 3. 지도자는 대화를 통해 그 안에서 문제를 해결한다. | .835 | .064 | 15.566*** | | | |
| | | 4. 지도자는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는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 .809 | | | | | |
| 기술 | 기술 | 1. 지도자는 시범을 보여준다. | .627 | .079 | 11.303*** | .701 | .920 | .879 |
| | | 2. 지도자는 다양한 기술을 지도한다. | .778 | .072 | 14.966*** | | | |
| | | 3. 지도자는 선수 각자에게 기술을 설명해 준다. | .779 | .073 | 14.978*** | | | |
| | | 4. 지도자는 기술적 단점을 보완하기위해 선수와 함께 노력한다. | .837 | .062 | 16.588*** | | | |
| | | 5. 지도자는 기술적 실수를 교정해준다. | .821 | | | | | |
| 상호작용 | 믿음 | 1. 지도자의 꾸지람을 이해한다. | .808 | .049 | 17.967*** | .854 | .946 | .901 |
| | | 2. 나는 지도자를 믿는다. | .913 | .044 | 22.750*** | | | |
| | | 3. 지도자와 나는 서로를 믿는다. | .888 | | | | | |
| 격려 | 격려 | 1. 지도자는 선수들을 격려해 준다. | .865 | .051 | 19.571*** | .860 | .948 | .907 |
| | | 2. 지도자는 선수들을 아껴준다. | .900 | .049 | 21.102*** | | | |
| | | 3. 지도자는 선수들에게 용기를 준다. | .865 | | | | | |
| 노하우 | 노하우 | 1. 지도자는 자신만의 승리비결을 가지고 있다. | .846 | .062 | 17.155*** | .763 | .927 | .884 |
| | | 2. 지도자는 자신만의 지도비결이 있다. | .881 | .060 | 18.194*** | | | |
| | | 3. 지도자는 독특한 훈련 방법으로 지도한다. | .700 | .074 | 13.128*** | | | |
| | | 4. 지도자는 선수 선발능력이 뛰어나다. | .826 | | | | | |

| | | | | | | | | |
|--------|--|---|------|------|-----------|------|------|------|
| 자기효능감 | - | 1. 나에게 의미 있고 중요한 경기성 과를 이루어낼 수 있다. | .782 | | | | | |
| | | 2. 노력하기로 마음먹은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751 | .066 | 13.796*** | | | |
| | | 3.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고 경기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807 | .070 | 15.105*** | | | |
| | | 4. 나에게 주어진 어려운 경기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829 | .071 | 15.641*** | | | |
| | | 5. 어려운 문제들을 직면했을 때 대부분을 극복할 수 있다. | .815 | .069 | 15.320*** | .761 | .962 | .935 |
| | | 6. 어려운 경기가 주어질지라도 비교적 수행할 수 있다. | .781 | .072 | 14.509*** | | | |
| | | 7.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대부분의 과업을 잘 수행할 수 있다. | .846 | .074 | 16.082*** | | | |
| | | 8. 나는 내가 정한 목표의 대부분을 달성할 수 있다. | .812 | .071 | 15.230*** | | | |
| 운동몰입 | 인지몰입 | 1. 운동이 자랑스럽다. | .807 | .044 | 17.558*** | | | |
| | | 2. 운동은 나의 삶에 매우 소중한 부분이다. | .838 | .045 | 18.751*** | .770 | .930 | .908 |
| | | 3. 운동을 생각하면 즐거워진다. | .859 | .047 | 19.630*** | | | |
| | | 4. 운동을 통해 행복감을 느낀다. | .879 | | | | | |
| 운동몰입 | 행위몰입 | 1. 운동의 기술이나 운동방법에 관한 정보를 얻으려 노력하는 편이다. | .794 | .055 | 15.380*** | | | |
| | | 2. 운동에 관한 미디어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보는 편이다. | .701 | .057 | 13.000*** | .687 | .897 | .850 |
| | | 3. 운동을 멋지게 하는 상상을 종종 해 본다. | .735 | .059 | 13.844*** | | | |
| | | 4. 운동에 빠져(몰입)있는 것 같다. | .827 | | | | | |
| 인지된경기력 | - | 1. 나의 경기력은 예전에 어느 때보다도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고 있다. | .827 | | | | | |
| | | 2. 나의 경기력은 상승세이다. | .859 | .060 | 17.632*** | | | |
| | | 3. 나의 경기력은 만족할 만하다. | .845 | .064 | 17.219*** | .679 | .913 | .919 |
| | | 4. 나는 항상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 .844 | .061 | 17.189*** | | | |
| | | 5. 나는 정상급의 경기력을 가졌다. | .804 | .071 | 15.978*** | | | |
| 적합도 | $\chi^2 = 1401.648 (df=704, p<.000), Q(\chi^2 / df)=1.991, TLI=.917, CFI=.925, IFI=.925, SRMR=.0494, RMSEA=.059$ | | | | | | | |

*** p<.001

4. 자료처리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25.0 및 AMOS 24.0을 이용하였다. 첫째, 태권도 겨루기 선수와 품새 선수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둘째, 설문지 구성의 타당도(집중타당성, 개념신뢰도, 평균분산추출지수, 판별타당성)을 확보를 위하여 확인적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셋째, 측정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를 확보하기 위하여 신뢰도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넷째, 요인 간 상관관계와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보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Pearson's Correlation)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 다변량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결 과

1. 상관관계 분석결과

지도자-선수 상호작용, 운동몰입, 자기효능감, 인지된 경기력의 상관관계와 다중공선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의 적률상관관계를 산출하여 판별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상관관계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각 하위요인의 유의수준이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요인들 간의 상관계수가 .8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통계분석한 결과 각 요인의 표준편차는 $\leq \pm 2$, 왜도는 $\leq \pm 3$, 첨도는 $\leq \pm 8$ 의 기준을 충족함에 따라 정규성을 확인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한 기본가정이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4. 상관관계분석 결과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
| 1 | 1 | | | | | | | | |
| 2 | .670** | 1 | | | | | | | |
| 3 | .644** | .647** | 1 | | | | | | |
| 4 | .729** | .687** | .799** | 1 | | | | | |
| 5 | .628** | .717** | .709** | .711** | 1 | | | | |
| 6 | .459** | .447** | .549** | .538** | .549** | 1 | | | |
| 7 | .368** | .298** | .483** | .440** | .380** | .612** | 1 | | |
| 8 | .392** | .394** | .551** | .487** | .463** | .660** | .777** | 1 | |
| 9 | .195** | .127* | .263** | .221** | .281** | .561** | .490** | .472** | 1 |
| M | 3.75 | 4.01 | 4.05 | 4.07 | 3.96 | 3.80 | 3.87 | 3.91 | 3.15 |
| SD | .631 | .643 | .670 | .675 | .667 | .630 | .775 | .672 | .906 |
| 왜도 | -.223 | -.228 | -.023 | -.176 | -.118 | .093 | -.374 | -.090 | .072 |
| 첨도 | -.281 | -.325 | -.977 | -.887 | -.736 | -.350 | -.214 | -.482 | -.340 |

1.대화, 2.기술, 3.믿음, 4.격려, 5.노하우, 6.자기효능감, 7.인지몰입, 8.행위몰입, 9.인지된 경기력
* $p < .05$, ** $p < .01$

2. 가설 검증

1) 지도자-선수 상호작용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표 5. 지도자-선수 상호작용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 구분 | B | S.E | β | t |
|------|-------|------|---------|---------|
| (상수) | 1.29 | .210 | | 6.154 |
| 대화 | .057 | .071 | .060 | .810 |
| 기술 | -.032 | .075 | -.032 | -.426 |
| 믿음 | .209 | .079 | .222 | 2.64** |
| 격려 | .134 | .086 | .144 | 1.55 |
| 노하우 | .260 | .074 | .275 | 3.49*** |

$F=32.283$, $p < .001$, $R^2 = .363$, Adjusted $R^2 = .352$

* $p < .05$, ** $p < .001$

본 연구의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이 나타났다.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고($F=32.283, p<.001$), 독립변수인 믿음($\beta=.222, t=2.64$), 노하우($\beta=.275, t=3.49$)는 자기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결과의 설명력은 35.2%(Adjusted $R^2 = .352$)로 나타났다.

2) 지도자-선수 상호작용이 운동몰입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해 다변량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6>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지도자-선수 상호작용이 인지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지도자-선수 상호작용의 하위요인 중 믿음($B=.411, t=3.89$)만이 인지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대화($B=.099, t=1.04$), 기술($B=-.162, t=-1.62$), 격려($B=.150, t=1.30$), 노하우($B=.092, t=0.92$)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지몰입의 설명력은 23.7%(Adjusted $R^2 = .237$)로 나타났다.

표 6. 지도자-선수 상호작용이 운동몰입에 미치는 영향

| 구분 | B | t | p | np ² | power | |
|------|------|-------|-------|-----------------|-------|------|
| 인지몰입 | (절편) | 1.51 | 5.38 | | .093 | 1.00 |
| | 대화 | .099 | 1.04 | .296 | .004 | .181 |
| | 기술 | -.162 | -1.62 | .105 | .009 | .368 |
| | 믿음 | .411 | 3.89 | .000 | .051 | .973 |
| | 격려 | .150 | 1.30 | .193 | .006 | .255 |
| | 노하우 | .092 | 0.92 | .354 | .003 | .152 |
| 행위몰입 | (절편) | 1.486 | 6.40 | | .127 | 1.00 |
| | 대화 | .003 | 0.04 | .964 | .000 | .050 |
| | 기술 | -.020 | -0.24 | .809 | .000 | .057 |
| | 믿음 | .405 | 4.63 | .000 | .070 | .996 |
| | 격려 | .082 | 0.86 | .387 | .003 | .139 |
| | 노하우 | .130 | 1.59 | .113 | .009 | .354 |

인지몰입 Adjusted $R^2 = .237$

행위몰입 Adjusted $R^2 = .307$

둘째, 지도자-선수 상호작용이 행위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지도자-선수 상호작용의 하위요인 중 믿음($B=.405, t=4.63$)만이 행위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대화($B=.003, t=0.04$), 기술($B=-.020, t=-0.24$), 격려($B=.082, t=0.86$), 노하우($B=.130, t=1.59$)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행위몰입의 설명력은 30.7%(Adjusted $R^2 = .307$)로 나타났다.

3) 지도자-선수 상호작용이 인지된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이 나타났다.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고($F=6.806, p<.001$), 독립변수인 노하우($\beta=.290, t=3.11$)는 인지된 경기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독립변수인 기술($\beta=-.224, t=-2.49$)은 인지된 경기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결과의 설명력은 9.2%(Adjusted $R^2 = .092$)로 나타났다.

표 7. 지도자-선수 상호작용이 인지된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 구분 | B | S.E | β | t |
|------|-------|------|---------|--------|
| (상수) | 1.669 | .357 | | 4.67 |
| 대화 | .087 | .120 | .063 | 0.72 |
| 기술 | -.316 | .127 | -.224 | -2.49* |
| 믿음 | .238 | .135 | .176 | 1.76 |
| 격려 | -.024 | .147 | -.018 | -0.16 |
| 노하우 | .394 | .126 | .290 | 3.11** |

F=6.806, $p<.001$, $R^2 = .107$, Adjusted $R^2 = .092$

* $p<.05$, ** $p<.01$

4) 선수들의 자기효능감이 인지된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가설 4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같이 나타났다.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고($F=131.870, p<.001$), 독립변수 자기효능감($\beta=.561, t=11.483$)은 인지된 경기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결과의 설명력은 31.2%(Adjusted $R^2 =.312$)로 나타났다.

표 8. 선수들의 자기효능감이 인지된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 구분 | B | S.E | β | t |
|--|------|------|---------|----------|
| (상수) | .087 | .271 | | .322 |
| 자기효능감 | .806 | .070 | .561 | 11.48*** |
| $F=131.870, p<.001, R^2 =.315, \text{Adjusted } R^2 =.312$ | | | | |

*** $p<.001$

5) 선수들의 운동몰입이 인지된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가설 5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9>와 같이 나타났다.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고($F=50.490, p<.001$), 독립변수인 인지몰입($\beta=.311, t=3.843$), 행위몰입($\beta=.230, t=2.85$)은 인지된 경기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결과의 설명력은 25.6%(Adjusted $R^2 =.256$)로 나타났다.

표 9. 선수들의 운동몰입이 인지된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 구분 | B | S.E | β | t |
|---|------|------|---------|---------|
| (상수) | .533 | .274 | | 1.942 |
| 인지몰입 | .363 | .094 | .311 | 3.84*** |
| 행위몰입 | .311 | .109 | .230 | 2.85** |
| $F=50.490, p<.001, R^2 =.261, \text{Adjusted } R^2 =.256$ | | | | |

** $p<.01$, *** $p<.001$

IV. 논 의

1. 지도자-선수 상호작용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태권도 선수들이 인지하는 지도자-선수 상호작용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지도자-선수 상호작용의 하위요인 믿음, 노하우는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대화, 기술, 격려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 태권도 지도자-선수들 간의 믿음과 노하우가 높을수록 선수들의 자기효능감이 높아질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김성일(2014)의 연구에서 학생들이 체육교사에 대한 믿음이 높으면 자기효능감이 높아진다고 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서지현(2009), 신태섭(2005), 우지현, 김학민, (2007)의 연구에서도 직·간접적으로 교사믿음이 학생의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Huebner(1992)의 연구에서는 지도자는 효율적인 지도방법을 활용하여 선수들의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것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통해 지도자와 선수들 간에 서로 신뢰관계를 구축하거나 선수에게 노하우를 전수하면 선수들의 자기효능감이 높아질 수 있는 점을 시사한다. 즉 지도자는 선수에게 자신이 선수생활 당시에 경기력에 대한 노하우를 전달하여야 한다. 선수 또한 지도자를 믿을 수 있도록 선수와 지도자만의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는 워크샵 및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선수들은 지도자를 믿고 신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신나래(2019)의 연구에서는 지도자의 훈련 및 지원행동, 격려 행동이 선수들의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사실은 스포츠 특성상에 따라 스포츠 분야에서 명령과 북

종의 서열 문화나 위계질서 문화가 존재하고 있어 선수들이 지도자와 교류하는 것이 부담이 느끼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도자와 선수들 간 심층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지도자는 올바른 서열 문화로 변화시켜 선수들이 태권도 지도자와 대화하는 부담이나 배척심리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자기효능감이 낮은 선수들에게 기술적 지도보다 심상훈련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된다. 일상 훈련 외적으로 태권도 선수들에게 기술적 지도뿐만 아니라 심상훈련과 같은 심리적 강화훈련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2. 지도자-선수 상호작용이 운동몰입에 미치는 영향

태권도 선수들이 인지하는 지도자-선수 상호작용이 운동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지도자-선수 상호작용의 하위요인 믿음만 운동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대화, 기술, 격려, 노하우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조병섭(2003), 전상완, 이우승, 이종하(2010)의 연구결과들은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게 나타났다. 이승은(2016)의 연구에서 지도자의 믿음은 골프 참여자들의 운동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골프이외에 무용, 태권도 종목에서도 지도자 믿음은 운동선수들의 운동몰입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변인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하은희(2012)의 연구에서는 여자 배구선수들이 지각한 지도자-선수간 상호작용의 하위요인 대화, 기술지도, 격려, 노하우가 운동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대학 태권도 지도자와 선수들 간에 믿음이 증가할수록 선수들의 운동몰입도 높아진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대학 태권도 지도자는 선수들에게 신뢰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에 세 가지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첫째는 태권도 지도자가 훈련방법이나 태권도 기

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지도자가 구체적으로 훈련계획이나 전문지식들을 전달하게 된다면 선수들은 지도자를 향한 진실된 신뢰가 생길 것이다. 따라서 현재 태권도 지도자는 과학적인 전문지식과 훈련방법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는 태권도 지도자가 운동이외에 일상 생활에서도 선수들에게 관심을 주면 지도자와 선수 간에 신뢰관계 형성에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선수들 간의 갈등이나 선후배 간에 괴롭힘 등 어려움을 잘 해결했을 때 선수들은 지도자에게 신뢰가 증가할 것이다. 셋째는 앞에 서술한 것처럼 현재 한국 스포츠 분야의 서열 문화가 뿌리박혀 있으며, 현재 대부분의 태권도 지도자는 선수에게 명령적인 형식으로 지도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권위적 지도 방식보다 선수들을 존중하고, 선수들의 생각과 의견을 중시하는 민주적 지도방식이 선수들의 운동몰입에 대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더 나아가 태권도 지도자는 선수들의 자율성 보장을 통해 지도자와 선수 간 친밀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면 선수들은 훈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운동에 대한 몰입이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태권도 지도자는 선수들의 생각과 의견을 잘 파악하고 자율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선수들이 운동에 대한 몰입감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여긴다.

3. 지도자-선수 상호작용이 인지된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태권도 선수들이 인지하는 지도자-선수 상호작용이 인지된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지도자-선수 상호작용의 하위요인 노하우는 인지된 경기력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기술은 인지된 경기력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김수정과 김성훈(2019), 노충균과 장세용(2016), 장세용(2019) 등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다양한 스포츠 종목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농구, 축구, 육상의 지도자와 선수 간에 상호작용이 높아지면 운동선수의 경기력에 대한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문은지,

2014, 정지혜와 김미선, 2009, 지거훈, 2011). 또한 구경주, 정해상(2015)은 지도자-선수 상호작용 중에서 노하우는 선수들의 경기력에 크게 증가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을 보여주고 있으며, 본 연구결과와 부합하고 있다. 이에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대학 태권도 지도자-선수 상호작용의 노하우가 증가할수록 선수들의 인지된 경기력도 높아진다는 점을 시사한다.

세계태권도연맹(WT)은 태권도가 올림픽 스포츠로 지속적인 주목받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스포츠서울, 2017). 이 트렌드에 발맞춰 태권도 경기규칙을 변화·발전하였다. 특히 최근 차등점수제의 확대와 전자보호구 도입하여 겨루기 경기규칙을 계속 변화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이에 운동선수를 지도하는 지도자는 누구보다 변화된 경기규칙을 빠르게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시합전략도 변화된 경기규칙에 맞게 지도할 필요가 있다. 즉 개정된 경기규칙에 대한 태권도 지도자는 빠른 적응이 필요하고, 선수들 각자 특성에 따라 올바른 시합전략을 검토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앞에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지도자와 선수들 간의 상호작용 중에서 지도자의 노하우는 선수들의 인지된 경기력에 큰 영향이 있다고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대학 태권도 지도자들의 노하우 경험은 과거 자신의 선수생활을 바탕으로 얻어진 경험이다. 이런 실정에서 지도자도 과거 경험보다 최신 경기규칙에 적응되는 시합 영상을 검토하거나 최신의 경기규칙과 관련된 워크샵 참석을 통하여 새로운 지도방식이나 시합전략을 얻을 것이다. 또한 현재 대학 태권도 대회를 살펴보면 대학 태권도 엘리트 선수들의 경기력이 상향 평준화되고 있기 때문에 시합장에서 선수들이 지도자의 경기전략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지, 지도자는 선수가 보낸 시그널을 알아듣고 대응할 수 있는지가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여긴다. 따라서 선수들은 경기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경기 중에 선수들은 지도자의 피드백을 받고 수행할 수 있는 훈련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지도자와 선수들 간의 상호작용에서 기술은 인지된 경기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시합장에서 선수들의 개인능력에 따라 지도자가 가르쳤던 기술

을 모두 다 활용하지 못 할 수도 있으며, 특히 시합에서 엘리트 선수들에게는 기술적 요인보다 심리적 요인이 선수들의 경기력에 큰 영향이 있다고 여긴다.

4. 선수들의 자기효능감이 인지된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태권도 선수들의 자기효능감이 인지된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자기효능감은 인지된 경기력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김봉경(2017)의 연구에서 선수들의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인지된 경기력이 높아진다고 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태권도 종목 뿐만 아니라 테니스, 사격, 검도선수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결과도 선수들의 자기효능감이 인지된 경기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제승, 신나래, 이성노, 2019; 이호림, 장덕선, 2020; 허정훈, 박상국, 2020). 또한 최동훈, 전정우(2020)의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운동선수들의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대학 태권도 선수들의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면 인지된 경기력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사실 대학 태권도선수들은 시합 전에 부정적인 심리 요소로 인해서 자기 실력에 대해 믿지 않는 경우가 존재할 것이며,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중요한 큰 대회 전 엘리트 선수도 이런 요인이 경기력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도자는 적극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선수들에게 경기에 대한 올바른 사고방식을 심어 주고, 체계적인 심리기술훈련을 통하여 선수들의 자신감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5. 선수들의 운동몰입이 인지된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태권도 선수들의 운동몰입이 인지된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운동몰입의 하위요인 중 인지몰입과 행위몰입은 인지된 경기력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김대성(2016), 이재권, 임세준(2019), 이기형(2008), 박금숙(202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김주영(2020)은 복싱선수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는 복싱선수들이 운동에 몰입이 높을수록 경기력도 높아진다는 결과가 본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또한 박규량, 박상우, 유영훈, 한상일(2021)은 선수들이 운동몰입을 할수록 좋은 성과를 내타내고, 경기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더 나아가 엘리트스포츠이외 생활스포츠 중 스크린 골프의 참여자는 운동상황에서의 몰입은 인지된 경기력에 대한 확신을 유발하는 요인의 역할이라고 언급하였다(이제욱, 윤세진, 나웅태, 2020).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대학 태권도 선수들의 운동몰입이 높아지면 인지된 경기력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선수들의 운동몰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태권도 지도자는 선수들의 개인 특성을 잘 파악해야 하며 적극적인 운동동기를 부여하여 선수들이 운동에 대한 열정을 쏟을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또한 선수들은 긍정적으로 경기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는 기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선수들의 운동몰입이 높아지게 되면 선수들의 경기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태권도 선수들이 인지하는 지도자-선수 상호작용이 자기효능감, 운동몰입, 인지된 경기력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설 검증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도자-선수 상호작용의 하위요인 믿음, 노하우는 자기효능감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도자-선수 상호작용의 하위요인 믿음은 운동몰입에 정(+)²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도자-선수 상호작용의 하위요인 노하우는 인지된 경기력에 정(+)²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기술은 인지된 경기력에 부(-)²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자기효능감은 인지된 경기력에 정(+)²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운동몰입의 하위요인 중 인지몰입과 행위몰입은 인지된 경기력에 정(+)²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선수들의 경기력 수준에 높이기 위해서 지도자로서 새로운 경기규칙, 시합전략, 훈련방법 등 전문지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도자들은 워크숍과 세미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또한 태권도 지도자는 선수들과 서로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선수 개개인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고,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한다.

2. 제언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태권도선수들을 지도하는데 도움이 되는 후속연구를 위해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전체적인 스포츠종목에 따라 연구를 진행한 것이 아닌 태권도만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전체적인 스포츠종목에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태권도 종목만이 아닌 여러 가지의 종목을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면 새로운 연구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본 연구는 대학 태권도 겨루기, 품새 선수들을 모집단으로 선정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시범선수들을 추가하여 조사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구경주, 정해상(2015). 중·고등학교 축구선수가 지각하는 지도자-선수상호작용이 팀응집력과 운동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24(6), 95-111.
- 김경수(2022). **대학 태권도 겨루기선수들의 하지 근육 두께가 움직임 안정성과 무산소성 파워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 김계수(2006). **인과분석 연구방법론**, 서울: 청람.
- 김대성(2016). **검도선수의 자기관리행동에 따른 운동몰입이 인지된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 김미선, 정지혜(2011). 선수들이 지각하는 코치-선수 간 상호작용 검사지 개발: 다집단 분석과 잠재평균 차이 검증.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22(2), 171-186.
- 김봉경(2014). 태권도 선수의 전자호구 체험요소가 자기효능감과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23(5), 629-640.
- 김봉경(2017). 태권도 시합에서 전자호구를 사용하는 선수들의 성취목표, 자기효능감 및 경기력의 구조적 관계. **한국스포츠학회지**, 15(1), 523-532.
- 김수정, 김성훈(2019). 대학 태권도 선수들이 인지하는 지도자-선수 상호작용, 지도자 신뢰, 인지된 경기력과의 관계. **세계태권도문화학회지**, 10(1), 131-145.
- 김주영(2020). 복싱선수들의 스포츠 자신감이 운동몰입 및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무예연구**, 14(4), 117-136.
- 김지선(2022). 필라테스 지도자와 참여자의 상호작용성이 운동만족 및 운동지속 간의 인과관계. **한국응용과학기술학회지** 39(2), 324-334.
- 김혜정, 한송이(2010). 교수-학생의 상호작용이 신체적 자기효능감 및 무용능력성취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용과학회지**, 21, 1-19.
- 남광우, 김종식(2016). 대학 지도자의 자율성지지행동 및 통제된 코칭행동과 선수의 열정 및 운동행동의 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66), 373-386.

- 남광우, 조옥상(2014). 유도 학생선수들의 지도자 코칭지식 지각이 지도자신뢰 및 운동 몰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인문사회과학**, 53(1), 143-154.
- 노경섭(2016). **제대로 알고 쓰는 논문 통계분석 SPSS & AMOS 21**. 한빛아카데미 출판사.
- 노충균(2016). 대학 태권도 품새 선수들의 지도자 선수 상호작용이 인지된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 노충균, 장세용(2016). 대학 태권도 품새 선수들의 지도자 선수 상호작용이 인지된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55(6), 185-194.
- 문은지(2014). **체육 중·고등학교 육상선수와 지도자의 상호작용이 코칭만족과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忠南大學校 大學院.
- 박규량, 박상우, 유영훈, 한상일 (2021). 태권도 시범단원의 지도자 신뢰가 운동몰입과 인지된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코칭능력개발지**, 23(2), 170-176.
- 박금숙(2021). 골프선수들의 운동몰입이 운동수행능력 및 자기효능감, 경기력향상에 미치는 영향. **골프연구**, 15(4), 327-339.
- 박상우(2017). **스포츠센터 회원의 운동가치인식과 과제목표성향, 운동몰입, 운동지속에 관한 인과모형**.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박종학(2017). 학교운동부 감독교사와 학생선수 간 상호작용과 학교생활적응 및 운동몰입 간의 관계. **한국체육교육학회지**, 22(1), 71-82.
- 서지현(2009). **학생이 지각한 담임교사의 의사소통유형, 담임교사에 대한 신뢰, 자기효능감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 스포츠서울(2017).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525509>
- 신나라(2019). **검도 지도자 유형이 중·고등부 선수들의 자기효능감 및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신태섭(2005). **학업성취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지각된 교사기대, 가정환경요인 간의 관계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양대승(2015). 태권도 겨루기 지도자-선수의 상호작용과 경기력의 관계에서 스포츠 자신감의 매개효과. **한국체육과학회지**, 23(6), 401-413.
- 우진현, 김학민(2007). 상업계 고등학교 담임교사의 리더십 유형에 따른 학생의 자

- 아효능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 인식을 중심으로. **상업교육연구**, 17, 123-151.
- 유영설, 이정훈, 문은지(2014). 육상선수와 지도자의 상호작용이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23(2), 743-758.
- 윤정원(2017). 다이빙 선수의 경쟁불안이 인지된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 이경하, 최재원(2023). 팀 스포츠 선수들이 지각하는 실패 두려움 구성요인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3(1), 67-84.
- 이기형(2008). 대학 축구선수의 경기력 수준과 경기몰입경험과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수원대학교 대학원.
- 이승은(2016). 골프지도자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활용이 지도자 신뢰 및 운동몰입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4(10), 543-551.
- 이원희(2009). 유도 엘리트 선수와 지도자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질적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대학원.
- 이재권, 임세준(2019). 불링 지도자의 커뮤니케이션 유형과 운동 몰입, 자기효능감 및 인지된 경기력간의 구조적 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77), 373-382.
- 이제승, 신나래, 이성노(2019). 검도 지도자 유형이 중등부 선수들의 자기효능감 및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학회지**, 17(1), 611-622
- 이제욱, 윤세진, 나웅태(2020). 스크린골프 참여자의 시스템 신뢰와 몰입, 운동만족 및 인지된 경기력과의 관계. **골프연구**, 14(4), 377-388.
- 이호림, 장덕선(2020). 사격선수의 실패내성과 자기효능감 및 인지된 경기력의 관계. **스포츠사이언스**, 38(2), 53-61.
- 장세용(2019). 고등학교 태권도 선수들의 지도자-선수 상호작용이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무예연구**, 13(2), 29-46.
- 전경우(2020). 스포츠센터 지도자의 멘토 기능과 성취목표성향, 자신감, 운동 몰입 및 운동지속의도의 구조적 관계.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전경우(2020). 스포츠센터 지도자의 멘토 기능과 성취목표성향, 자신감, 운동몰입 및 운동지속의도의 구조적 관계.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원.

- 전상완, 이우승, 이종하(2010). 빙상선수들의 지도자신뢰와 자기관리 및 운동몰입의 인과관계. **한국체육과학회지**, 19(2), 523-533.
- 정용각(1997). **여가운동 참가자의 스포츠 참여동기, 각성추구, 정서의 요인이 스포츠 몰입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정지혜, 김미선(2009). 여자프로농구선수들이 인식하는 코치-선수의 상호작용. **한국체육과학회지**, 18(1), 425-436.
- 조남홍(2008). **체육수업에서 교사-학생간의 상호작용이 학생들의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 조병섭(2003). **골프지도자의 카리스마 리더십에 따른 리더동일시 및 신뢰, 운동몰입이 지도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조철호(2021). **대학 태권도 선수들의 지도자-선수 상호작용이 인지된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일반대학원.
- 지거훈(2011). **고등학교 축구선수의 스트레스와 선수-코치간의 상호작용 및 심리적 경기력 결정요인과의 관계**. 미간행 국내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채진수, 배원열, 한동유. (2020). 대학생의 운동참가동기, 자기효능감 및 운동몰입간 구조적 관계 해석. **한국체육학회지**, 59(6), 333-348.
- 최동훈(2020). **대학 품새 선수의 자기효능감이 팀 응집력과 인지된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최동훈, 전정우(2020). 대학 품새 선수의 자기효능감이 팀 응집력 및 인지된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무예연구**, 14(2), 93-109.
- 최미영(2015). **엘리트 댄스스포츠 지도자와 선수의 상호작용 형성 과정**. **한국무용과학회지**, 32(1), 91-106.
- 하은희(2012). **여자배구선수들이 지각한 지도자-선수간 상호작용이 운동몰입과 팀 응집력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홍길동, 김경식, 배기열(2008). 중·고교 양궁 지도자와 선수간의 상호작용이 선수의 운동만족, 신뢰 및 운동지속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지**, 8(6), 232-241.

- 황정동, 주재형, 임승현(2016). 지도자의 자율성 지지가 중·고교 핸드볼선수의 지도자-운동선수 관계 및 열정과의 관계. *한국체육과학회지*, 25(1), 87-97.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125.
- Chen, G., Gully, S. M., & Eden, D. (2001). Validation of a New General Self-Efficacy Scale.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4(1), 62-83.
- Csikszentmihalyi(1975). Flow the psychology of optimal experience. NY: Prentis-Hall.
- Erickson, K., & Côté, J. (2015). The intervention tone of coaches' behaviour: development of the Assessment of Coaching Tone (ACT) observational coding system.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 Science and Coaching*, 10(4), 699-716.
- Estevan, I., Falco, C., Elvira, J. L. L., & Vera-Garcia, F.J. (2015). Trunk and lowerlimb muscle activation in linear, circular and spin back kicks. *Archivof Budo*, 11, 243-250.
- Huebner, E. S. (1992). Burnout among school psychologists: An exploratory investigation into its nature, extent and correlates. *School Psychology Quarterly*, 7(2), 129-136.
- Ickes, W., Ickes, W. J., & Duck, S. (Eds.). (2000). *The social psychology of personal relationships* (Vol. 3). John Wiley & Sons.
- Jang, Seyong, & So, Wi-Young(2017). Taekwondo Coach Athlete Interaction and Perceived Performace: A Comparison Between Two Taekwondo Styles, Gyeonggi and Poomsae. *Journal of mens health*, 13(2), e34-e39.
- Jowett, S., & Cockerill, I. M. (2003). Olympic medallists' perspective of the athlete-coach relationship.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4(4), 313-331.
- Jowett, S., & Ntoumanis, N. (2004). The coach-athlete relationship questionnaire (CART-Q):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Scandinavian journal of*

- medicine & science in sports*, 14(4), 245-257.
- Jowett, S., & Poczwardowski, A. (2007). Understanding the coach-athlete relationship. *Social psychology in sport*, 6, 3-14.
- Jowett, S., & Timson-Katchis, M. (2005). Social networks in sport: Parental influence on the coach-athlete relationship. *The Sport Psychologist*, 19(3), 267-287.
- Jowett, S., Paull, G., Pensgaard, A. M., Hoegmo, P. M., & Riise, H. (2005). *Coach-athlete relationship. Applying sport psychology: Four perspectives*, 153-170.
- Judge, T. A., Locke, E. A., & Durham, C. C. (1997). The dispositional causes of job satisfaction: A core evaluations approach.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19, 151-88.
- Mamassis, G., & Doganis, G. (2004). The effects of a mental training program on juniors pre-competitive anxiety, self-confidence, and tennis performance. *Journal of applied sport psychology*, 16(2), 118-137.
- MOOKAS(2016). <https://mookas.com/news/15171>
- Netemeyer, R. G., Boles, J. S., McKee, D. O., & McMurrian, R. (1997). An investigation into the antecedents of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s in a personal selling context. *Journal of Marketing*, 61(3), 85-98.
- Scanlan, T. K., Carpenter, P. J., Simons, J. P., Schmidt, G. W., & Keeler, B. (1993). An introduction to the sport commitment model. *Journal of sport & Exercise Psychology*, 15(1), 1-15.
- Scanlan, T. K., Simons, J. P. J., & Schmidt, G. W. (1993). The sport commitment model: Measurement development for the youth-sport domain. *Journal of Sport & Exercise Psychology*, 15(1), 16-38.
- Stanula, A., Maszczyk, A., Rocznik, R., Pietraszewski, P., Ostrowski, A., Zając, A., & Strzała, M. (2012). The development and prediction of athletic performance in freestyle swimming. *Journal of human kinetics*, 32, 97-107.

ABSTRACT

Influencing Relationship among Coach-Athlete Interaction Perceived by Taekwondo Athletes on Self-Efficacy, Exercise Flow and Perceived Performance

Wu, Jinge(Kyunghee Univ.) · Choi, Chun(Jungwon Univ.)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erefore,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coach-athlete interaction perceived by Taekwondo athletes on the self-efficacy. To this end, it conducted the convenience sampling among the non-probability sampling, by recruiting Taekwondo sparring and Poomsae athletes from the Korean university, and used a total of 289 questionnaires. data were conducted by using SPSS 23.0 and AMOS 23.0.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belief and the know-how among the sub-factors of the coach-athlete interaction perceived have positive effects of the self-efficacy. Second, the belief among the sub-factors of the coach-athlete interaction perceived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exercise flow. Third, the know-how among the sub-factors of the coach-athlete interaction perceived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perceived performance. Fourth, the self-efficacy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perceived performance. Fifth, the exercise flow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perceived performance. In conclusion, The game rules, game strategies and training methods would be changed and developed, and coaches should make continuous effort to increase their professionalism,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the modern Taekwondo. Hence the current Taekwondo coaches need to actively participate in workshops, seminars, etc., to acquire professional knowledge necessary for them.

Key words: Taekwondo, Athlete, Coach, Interaction Perceived, Perceived Performance

논문투고일 : 2022.12.30.
심사일 : 2023.01.25.
심사완료일 : 2023.02.17.